

기본여건강화 등 관계법 개정

정부차원 사찰 화재시스템 마련...올 하반기부터 시행

정동채 문광부장관 국무회의 보고

산불 등 화재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대책이 정부차원에서 마련됐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5월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낙산사 화재 피해 복구 및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은 낙산사 복원에 따른 정부의 예산 투입 규모와 사찰의 화재예방 대책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전통사찰 화재예방 대책의 골자는 △안전선 및 방화선 확보 △재난 방제 기본여건 강화 △재난 방제시스템 및 대피시설 구축 △관련 제도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안전선과 방화선은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사찰 주변 20~30m 거리의 수목을 제거하거나 솎아내 마련된다. 사찰로부터 1km 거리에는 소방용임도로 활용 가능한 방화선이 구축된다.

방재여건 강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용수 확보. 소방차가 도착하는 데 소요되는 20여분을 버티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소화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저수댐을 확대설치하고, 주요 목조문화재 소장 사찰 20여곳에는 소방서 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막설비(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 재난방재여건을 강화한다.

또 사찰성보박물관 방화시설을 보완하고, 방화벽커튼을 만들어 문화재 사찰 및 대피시설 구축 △관련 제도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안전선과 방화선은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사찰 주변 20~30m 거리의 수목을 제거하거나 솎아내 마련된다. 사찰로부터 1km 거리에는 소방용임도로 활용 가능한 방화선이 구축된다.

시 대처요령, 문화재 소산계획 등을 담은 화재대응 매뉴얼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박익순 기자

낙산사 복구에 89억 투입

정부는 낙산사 동종과 전각 12동 복원에 88억8천4백97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낙산사 피해복구 지원대상 전각은 원통보전 등 소실된 건물 12동이다. 우선 원통보전 등 중요지역을 발굴해 가람배치를 파악하는 등 가급적 원형을 가깝게 짓는다는 방침이다.

피해복구예산 89억원은 국비 46억원, 지방비 27억원, 복원기금 16억원 등으로 구성되며, 초과하는 비용은 사찰측이 부담한다. 산림복원 계획은 산림청과 지자체가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다. 박익순 기자



조계종은 5월 1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앞으로 국내외 재해에 봉사인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재난구호봉사대를 창립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언제든 어디든 출동한다!”

조계종 재난구호봉사대 19일 조계사에서 발대식

조계종은 5월 1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314명의 봉사대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대(총재 법장)' 발대식을 갖고 체계적 재난구호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엔 창설된 긴급구호봉사대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현지에 필요한 인력과 물품을 적체적으로 공급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 외에도 ▲연 1회 기본교육과 등원시스템을 점검 ▲재난 발생 3일 이내 선발대 현지파견 ▲사건발생 7일 이내에 40인 내외의 본대파견 ▲현지 활동은 일주일 기준 등의 활동 방안을 토대로 운영하게 된다.

김강진 기자



진각종 제27대 총무원장 취임식에서 회장 정사각 취임사를 하고 있다.

“화합·상생으로 종단발전 이끌터”

진각종 20일 회정 총무원장 취임식 봉행

진각종 제 27대 회정 총무원장 취임식이 5월 20일 총무원 야외특설 무대에서 3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회장 총무원장은 취임사에서 “화합과 상생을 종단운영의 기초로

창의적 사고와 추진력 있는 인재로 중요하고, 행정기관의 자율적 기획과 추진을 독려하는 물론 문화정책을 구체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인 법장 스님은 축사를 통해 “진각종은 교육

과 복지사업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장과 발전을 이룩해온 진각종이 총무원장에 취임하는 회장 정사각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각종 해일 총인을 비롯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천태종 부원장 춘광, 조계종 총회부의장 원택, 총회총 총무원장 남정 스님과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 현대불교신문 김광삼 사장, 문화관광부 이보경 총무실장 등이 참가했다. 글·사진=김원우기자

해외포교현장 직접 살핀다

법장 스님 5월24~6월1일 미국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미국 방문 중 법장 스님은 28일(현지시간)과 29일 뉴욕대법회와 LA대법회에 참석해 현지 불자들을 위로하고 한국불교 해외포교의 중요성

등에 대해 법문한다. 법장 스님은 또 27일 하버드대학 교수 및 하버드대학 종교·불교학자의 좌담회 등에 참석해 간담회를 진행으로 한 한국 불교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뉴욕 불광사와 LA 관음사, 고려사, 달마사 등도 방문할

문광부, 저작권 공금증 해결 책발간

문화부가 소장한 유물들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해 사진을 못찍게 하거나 응용 문화상품을 만들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또 박물관의 유물과 같이 저작자가 따로 없는 문화유산은 특별한 절차나 요건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할까?

문화관광부가 저작권과 관련한 의문사항을 정리한 <저작권, 그 안에 무엇이 있길래>를 최근 발간했다. 이 책은 저작권의 의미, 저작권 보호 주체와 대상, 저작권 확보방법 등 저작권 일반 상식 뿐 아니라 60가지의 사

례를 들어 저작권과 관련한 갖가지 궁금한 사항을 알기 쉽게 풀어주고 있다. 특히 불교문화유산을 활용한 각종 문화 콘텐츠 저작권과 관련해 하나의 지침서가 될 전망이다.

문화부 저작권과측은 “문화예술과 산업의 발달에 따라 저작권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지만 과거와 같이 저작권을 가볍게 생각하다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저작권에 대한 지식을 키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불자대상’ 상금 중단발전기금 쾌척

김윤규부회장·박지성 선수

불기 254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불자대상을 수상한 김윤규 현대아산 부회장과 박지성 선수가 부상으로 받은 300만원을 조계종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법요식 후 김윤규 부회장은 “금강산 신계사 복원을 성공적으로 회향해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지성 선수 대신 수상한 할아버지 박동래(75)씨와 할머니 김매심(69)씨도 “지성이야 앞으로 더 열심히 해 훌륭한 선수가 되길 바라겠다”며 수상 소감을 내세웠다.

한편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후 산불 피해를 입은 양양 낙산사 복원 성금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에게 전달했다. 남동우 기자

경주캠 기숙사 건설의혹

東大 이사회 감사보고서 지적

5월 20일 열린 제210차 동국대 이사회에서 2004년도 법인 각급기관 감사결과, 지난해 개관한 경주 캠퍼스 북지관(기숙사)의 입찰계약과 관련해 각종 위법사실을 보고했다.

법인의 이홍섭 감사는 “동국대가 복리관 공사를 추진하면서 관청의 견제 허가가 나기도 전, 5개월이나 앞서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이 이뤄졌고, 시공 능력과 도급기준이 미달하는 S종합건설과 무리하게 계약이 체결 됐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용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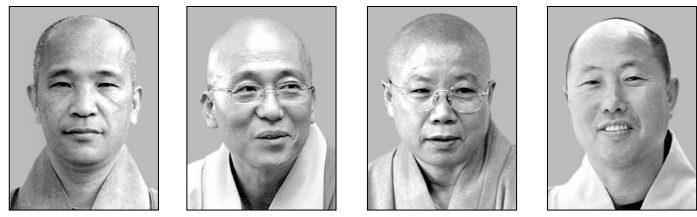
내달 중순 조사결과 발표

역사기념관 조사대책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조사대책위(위원장 정주, 이하 조사대책위)는 5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교 중앙박물관 공사과정을 점검할 김리사로 김태출(새담종학건축 감리단장)을 선정했다. 조사대책위는 김리사가 6월 2일 김리결과를 보고하는 대로 6월 중순경 조사 진행상황을 발표하기로 했다. 6월말~7월초에는 불교계 내부의 불사문제를 조망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불사현황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총무 현고 재무 허운 문화 탁연 기획특보 여연 스님

조계종 총무원 인사



현고 스님 허운 스님 탁연 스님 여연 스님

조계종 새 총무부장에 현고, 재무 부장에 허운, 기획특보에 여연 스님이 5월 19일 임명됐다. 탁연 스님도 20일 새 문화부장에 임명됐다. 현고 스님은 1971년 사미계, 75년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송광사 주지, 총무원 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1972년 사미계, 78년 비구계를 수

지한 허운 스님은 보림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구 은적사 주지를 맡고 있다. 여연 스님은 1972년 사미계, 76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12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1969년 사미니계, 76년 구족계를 수지한 탁연 스님은 총무원 문화부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737-8881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722-4162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732-1522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예시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한국불교 최고 고승 대덕큰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평화를 기원한다.

공 광복 60 전국민평화불교도대회

2005년 6월 14일 (화) 오후 1시 - 1부 법회 2부 축원
 대전 / 한밭종합운동장 / 총무체육관

■ 주 최 : 봉행위원회 ■ 주 관 :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社團法人 韓國佛教團體總聯合會
 ■ 참가문의 : TEL 02)868-0108, 02)3487-7751 / FAX : 02-3281-0108

참가단체는 대표자에게 봉행위원회 증명, 자문위원, 봉행위원, 홍보대사, 평화대사 각분과위원장으로 추대한다.
 대회장에 종단 단체 명칭 현수막을 설치하며(현수막제작설치비10만) 참가자에게는 평화의 상징 기념품을 증정
 본 대회에 참가하는 종단은 본회 정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종교활동에 뒷받침이 되는 공익법인 증서를 받도록 행정을 지원함.

■ 후 원 : 연합불교방송국 WWW.CBC108.TV, 대전불교사암연합회
 ■ 회장 011-352-7751, 사무총장 011-356-3427, 집행본부장 010-3033-0124

우 152-05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4동 732-2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